

# 조기 진단 중요...복통·혈변 있다면 정밀검사 받아야



## 건강 바로 알기 염증성 장질환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원장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일어나는 염증성 장 질환을 의미한다. 대장 점막이 충혈되어 붓고 출혈을 일으키며, 대장 점막에 다발적으로 궤양이 생긴다. 직장항문염을 시작으로 점차 위로 올라가서 전 대장을 침범하며, 병변 부위가 계속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소장을 침범하지는 않는다.

염증성 장질환에 속하는 대표적인 병은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며,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국내에서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자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서구화된 생활양식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15~35세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며, 소아청소년환자도 적지 않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염증성 장질환이 발생하면 만성 설사 때문에 영양 섭취에 문제가 생겨 성장을

궤양성 대장염·크론병이 대표적 15~35세 젊은 연령층 발생 높아 궤양성대장염 95%가 만성 재발성 과식 않고 규칙적 식습관 가져야

방해한다. 그러므로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유전적·면역학적 이상, 스트레스, 식습관, 복용하는 약물 등 환경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증성 장질환은 반복적이고 갑작스럽게 복통과 설사가 찾아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방해한다. 아울러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동반되기도 한다. 치료가 늦어지거나 소홀히 하면 지속적인 혈변, 장협착, 장전공 등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이처럼 염증성 장질환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염증성 장질환을 빨리 발견하려면 먼저 의심 증상을 이해해야 한다. 만성 설사, 복통, 혈변,



김동규 교수

체중 감소가 지속되면 염증성 장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이런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된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 증상, 내시경 및 조직 병리 소견, 혈액검사 소견, 영상의학 검사 소견을 종합하여 진단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검사는 대장내시경검사다. 내시경으로 장 내부의 변화를 관찰하고, 조직검사서에서 얻은 정보를 종합해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하고 다른 종류의 대장염과 구별한다.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복적인 대장내시경검사나 전산화단층촬영 등 다른 검사 소견을 참고한다. 그 외에 혈액·형질 검사 및 대변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된다.

◇젊은 층에 많이 발생하는 크론병=유명 연예인이 앓고 있다고 밝혀서 병명이 많이 알려진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 전체에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주로 15~35세 젊은 층

에서 발견된다. 점막층이나 점막하층을 침범하는 궤양성대장염과 달리 장내의 모든 층에 염증이 침범할 수 있다. 주로 대장과 소장이 연결되는 부위인 회맹부에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고, 그다음으로 대장, 회장 말단부, 소장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한 가족 내에 크론병 환자가 여러 명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유전적·환경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크론병은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흡연은 크론병의 발생을 촉진하며, 흡연자는 수술 후 재발률이 높고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크론병 환자의 90% 이상에서 항문 질환이 발견된다. 항문 직장 (Anorectal area) 주위에 농양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치루가 생기기도 한다. 만성적인 장의 염증으로 인해 누공이 생길 수 있고, 상처와 장폐색이 나타날 수 있다. 누공과 농양이 장벽(腸壁)을 관통하는 큰 구멍을 만들기도 한다. 이 외에 장의 기능이상과 관련 없이 관절통, 관절염이 나타나며 피부, 눈, 간, 신장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골밀도가 감소해 골다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사람까지 이르는 궤양성대장염=궤양성대장염에는 만성 재발성 대장염, 만성 지속성 대장염, 급성 전격성 대장염 등 세 가지가 있다. 만성 재발성 대장염은 전체 궤양성대장염에서 95%를 차지한다. 증상이 나타난 후 몇 주가 지나면 자연히 없어

졌다가 수개월에서 수년 사이에 다시 심하게 나타난다. 재발할수록 상태가 악화하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만성 지속성 대장염은 5~6개월가량 상당히 심한 증상이 계속된다. 급성 전격성 대장염은 매우 증상이 심하며 열이 39도 이상 오르고 증상이 나타난 후 수 주일 내에 사망할 수도 있다.

궤양성대장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혈액과 점액을 함유한 묽은 변 또는 설사, 심한 복통, 탈수, 빈혈, 열, 체중 감소 등이다. 대장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설사가 발생하며, 궤양성대장염이 대장을 많이 침범하면 설사가 심해진다. 하루에 10회 이상 설사를 하기도 하며 변실금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피와 점액이 섞인 무른 변이나 피고름 같은 변이 나온다. 그러나 직장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 변이 약간 무르고 때로는 변비가 오기도 하며 만성 출혈로 인해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

병변의 정도, 범위, 합병증 유무에 따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에 따라 생물학적 제제, 면역억제제 등 치료제를 적절하게 조합해 염증을 조절한다.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카페인 등을 멀리해야 한다. 과식하지 않고, 맵거나 짠 음식을 먹지 않으며,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전남대병원, 최첨단 양방향 혈관조영 촬영장비 도입

방사선 노출 3분의 1로 감소  
시술 시간 줄어 환자 예후 향상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진)이 9일 독일 '지멘스' (Siemens)사의 최첨단 디지털 양방향 혈관조영 촬영장비 '아티스 아이코노 바이플레인 (Artis Icono Biplane)' '사진'을 도입했다.

지난달 2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양방향 혈관조영장비는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시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장비 대비 방사선 피폭 선량이 약 3분의 1로 감소돼 환자와 의료진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범위까지 영상 촬영이 가능해 사각지대 없이 더 정확한 뇌동맥류 시술을 구현, 시술 시간을 감소시켜 환자 예후를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병현 영상의학과장은 "급성 뇌졸중 환자의 혈전 제거술,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등에 대한 시술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어 치료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 독감 환자 4주 연속 감소에도 유행 기준의 3.5배

소아·청소년 환자 가장 많아 예방 접종 등 대비 필요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4주 연속 감소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 수가 유행 기준을 크게 초과해 주의가 필요하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5주차(1월 26일~2월 1일) 독감 의심환자 비율은 외래환자 1천 명당 30.4명이었다. 독감 환자 수는 1월 1주차 정점(99.8명)을 찍은 후, 2주차 86.1명, 3주차 57.7명, 4주차 36.5명, 5주차 30.4명으로 4주 연속 감소했다.

독감 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27.2명)보다 많은 데다 2024~2025절기 독감 유행 기준(8.6명)의 3.5배가 넘기 때문에 예방 접종 등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연령별로는 7~12세 환자가 1000명당 50.0명으로 가장 많고 13~18세 39.9명, 1~6세 36.8명 순으로, 소아·청소년 환자가 많았다. 65세 이상 고령층 독감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5명이었다.

병원급 이상(221개소)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1월 5주차 독감 입원환자는 276명이었다. 입원환자는 1월 2주차 1천627명으로 최대 발생 후, 3주차 1239명, 4주차 737명, 5주차 276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인 독감은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된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평균 2일 후에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소아의 경우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10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소아과에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감 추이가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질병청은 독감 의심환자가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1000명당 8.6명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때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